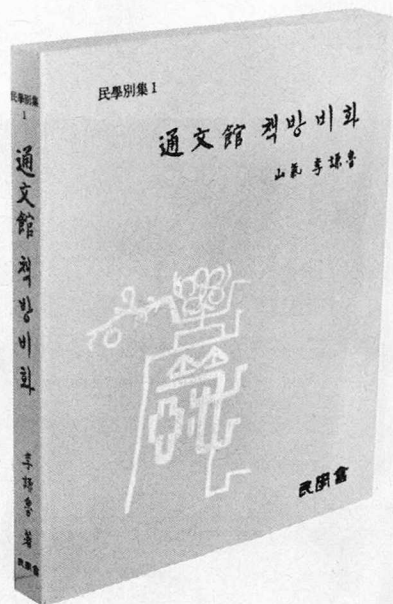


「책방 53년」 기록한 通文館 李謙魯씨

통문관 책방 비화

匡祐堂 / A 5 신변형 / 338면 / 9000원



50여 星霜을 古書와 더불어 살아온 通文館 주인 山氣 李謙魯翁(78)의 일생이 책에 담겨 나왔다. 民學會에서 펴낸 李씨의 「通文館 책방 비화」가 그것. 64년 이후 틈틈이 기록한 책방 비화와 書肆출판 얘기, 書誌學과 珍書회귀본에 대한 해설, 隨想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王朝實錄秘話·內閣列傳의 書誌學적 가치·春秋綱目異論·癸未字와 春秋左傳·舊韓末 石版印刷 略考·東史年表의 수난·능엄경의 간행年代·영영 농진 訓民正音韻解이야기 등이 있다.

山氣가 책과 첫 인연을 맺은 때는 1925년, 그의 나이 17세때. 서울에서 落鄕했던 고향로 京坊이라 이름했던 평남 용강의 한 貧村에서 태어난 그는 選文屋종업원으로 서점가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때는 종로통 야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책을 팔다가 34년 인사동 수도약국 자리에 金港堂이란 책가게를 내고 「딱지소설」을 팔았다. 해방후 현 장소로 옮겨 通文館 팻말을 걸었다.

국문학이나 국사학을 전공하는 학자치고 通文館을 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책방은 학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해왔다. 故宋 옥씨(前서울대)나 金龍德교수(중앙대)는 중고생때부터 드나들었을 정도. 그는 76년 이후 民學會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基層文化를 연구하는 동호인들의 모임. 會報가 15호까지 나왔고 踏查와 강좌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문관 책방 비화」는 일종의, 책에 관한 裏面史다. 대나무를 쪼개고 꿰매 책을 엮었던 기원전 5백년부터 지금까지 책이 걸어온 역사의 뒤안길을 엿보게 해준다. 예컨대 「노서두(老書蠹)의 辯」이라는 글도 옛날의 책 사정과 관련된 것.

서두란 옷이나 고서, 古書를 갈아먹고 사는 좀벌레의 일종. 그는 「고서 등속을 팔아서 저푸라기 같은 목숨을 이어온 자신을 비유한 「老書蠹의 辯」을 말하고 있지만 이 동물은 지

독한 혐오스러운 대상임이 틀림없음에도 한편 銀魚니 白魚니 하는 美化시킨 別名으로 불리기도 했다. 좀벌레의 비위조차 거스르지 않으려는 이 조심성은 책이 귀했던 시절, 그 亡失을 끔찍이도 두려워했던 世의 심리를 반영한 듯하다.

이와 관련된 말로, 「十讀이 不如一寫」란 말이 있다. 열번 읽느니 한번 베끼는 게 낫다 함은 筆寫本으로 돌려입던 수공업적 출판시대의 책의 희소가치를 웅변하는 말. 책 구하는 조바심에는 임금조차 예외가 아니었다고 山氣는 말한다. 가령 「宣祖의 책주문」이란 글에는 宣祖가 海昌君 尹晸(1563~1640)에게 보낸 手札의 한대목이 나온다.

「命을 받들어 중국에 가는 것은 文士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다만 먼 길에 무사히 왕래하기 바랄 뿐이며 酒饌을 보내어 위로한다. (중략) 對唐紙에 인쇄한 小註가 없는 四書·五經·官版本을 여러 차례 譯官들에게 구해 오라고 하였으나 판과 지질·인쇄가 좋지 않아 볼 수 없으니 좋은 책을 구해오기바란다」 책이 이처럼 귀했으니 校正도 예사로 불리 없었다. 조선조의 기록을 보면 교정에서 誤字 落書가 한 자 나올 때마다 교정자의 불기를 30대씩 매우 쳤다는 대목이 있고 世祖는 손수 교정을 보기도 했단다.

그러나 책이 귀한 보살핌만 받아온 건 아니었다. 李씨가 쓴 「書厄」편을 보면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에서 이르기를 「책이란 고금의 絶寶인 까닭에 조물주의 시샘을 받아 반드시 액(厄)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다. 뜻하지 아니한 불행에 당해 책이 불타 없어지거나 散



「通文館 책방비화」 출판기념회, 1987년

失되어 버리는 슬한 꼴들을 안타까와하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드물게나마 볼 수 있는 고서들은 멀리는 唐 李勣의 고구려 침략때부터 오늘까지 슬한 전란과 외세의 약탈·반출, 우여곡절의 書厄史를 견뎌 살아남은 것들.

그중 李씨가 찾아낸 책 얘기를 들어보자.

五經淺見錄은 陽村 權近(1352~1409)이 五經의 글 가운데 文義가 의심스런 구절에 대해 자기 견해를 덧붙여 논술한 책. 과거 易·書·詩·春秋에 대한 淺見錄이 발견 안돼 前問恭作은 실재하지 않았다고까지 속단한 바 있다. 66년 周淺(보물 550호로 지정)이 발견돼 前問 주장의 無根함이 밝혀졌는데 70년 초에는 詩·書淺見錄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山氣에

국문학이나 국사학을 전공하는
학자치고 通文館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책방은 학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했다.

게 찾아 왔다.

「내가 周淺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값은 따끔했지만 달라변을 얻어서라도 나머지 두 책을 손아귀에 넣어야겠다는 욕심이 청춘남녀의 사랑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부르는 값에서 한푼도 깎지 못하고 인수했다」

이러한 욕심이 지나쳐 邪不犯正의 愚를 범한 적도 있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서화·골동에는 위조가 많기 마련이어서 秋史의 글씨만 하더라도 열 가지 중에 진짜는 하나가 있을까 말까한 정도. 50년대 초 어느 날 墨石화백이 山氣더러 좋은 글씨를 보러 가자고 권유했다. 「다락에서 秋史의 隸書 對聯를 꺼내는데 표구는 중국식이고 외모의 낡은 품이 그럴싸했다. 글은 「文章爾雅 沈思翰藻」라 써어있고 종이의 낡은 연륜이 贋作(가짜)으로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부르는 값이 예상외로 싸 한가닥 욕심이 나의 눈을 현혹시

켰다. (중략)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속인 셈이다」

이러한 「쟁이 근성」으로 말미암아 山氣는 한때 書禍를 치르기도 한다. 때는 일제말 38년. 그는 조선총독부 外事課에서 폐기처분돼 휴지가게에 헐값으로 나온 서류중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의 불온문서와 日警앞잡이들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查察보고서를 접하게 됐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천재일우로 만난 史料를 놓칠 수 없어』 있는대로 구해다가 당시 「의식 있는」출판사였던 大東출판사(대표 李寬求)에 넘겼는데 이것이 나중 내부수색에 걸려 한동안 관련자들이 용산서에서 구류를 살기도 했다.

고서를 다루다 보면 이처럼 하찮은 휴지더미 속에서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서화·골동계에서 「호리다시」라 부른다. 우리 고유한 말로는 녹거리, 쨌거리라고 한다. 70년말에는 휴지거리, 쨌거리라고 한다. 70년말에는 휴지로 처분되다시피 하는 落帙本 「事文類聚」 지방판, 「零本七書」등을 뒤적이다 「3·1독립선언문」원본을 발견해 梨大 박물관에 보내기도 했다. 알려지기로는 고 金良善씨(前송전대 박물관장)와 金觀鎬씨가 한 장씩 보관했고 고 吳世昌선생은 3월1일 당시 桂洞골목을 지나다가 어느 고보생이 돌리는 것을 받아 자필 서명을 넣어 보존했다고 한다.

茶山校正 「御定奎章全韻」도 비슷하게 입수한 것으로 주로 한시를 지을 때 글자의 四聲을 참고하는 책. 지금은 漢詩 짓는 사람이 없어 상품가치도 적지만 正祖의 인간적인 면모가 담겨있어 흥미롭다. 즉 정조가 「규장전운」을 펼치니 「똥」자가 먼저 눈에 띄는지라 마음에 불쾌했던지 茶山에게 밀지를 내리기를, 똥자를 뒤로 밀치고 다른 別字를 집어넣으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父君 莊獻世子の 죽음과 결부된 연상이 아니었던가 李씨는 해석한다.

이처럼 책에 얽힌 갖가지 일화들이 우리 옛 문화에 대한 실감을 더하는데 자상한 안내를 맡고 있다.